

네번째주(Week 4)

이사야 9:1-7 “사라져야 할 억압” (“Oppression that needs Lifting”)

여는 기도:

주되신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렇기에 간구하는 것은,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불의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변에서 발견되는 억압과 불의를 단순히 발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대리인(your agents)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이사야 9 장은 칠혹과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그 막을 엽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음울한 풍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산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얽힌 데 덮친 격으로, 4 절말씀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고 힘겨운 멍에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압제자들의 회초리와 채찍 가운데 그들은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묘사들은 정말 끔찍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는 더 나아가 전사들의 전투화와 피로 얼룩진 그들의 옷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차적으로, 이사야는 이 말씀 속에서 기원전 7 세기경에 행해졌던 유다백성들의 유배(exile)을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볼때, 이사야의 이 표현들은 죄와 악의 지배아래 놓여있던 인류전체의 노예상태를 가르키는 다양한 예들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때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억압하는 정권 아래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선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수단에서 일어난 집단학살이나 시리아에서 도망치고 있는 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1990 년대에 일어난 르완다 학살이나 시에라리온 레온을 자행했던 끔찍한 폭력사태들을 떠올려보세요. 홀로코스트 당시 나치의 가스실로 끌려들어가는 유대인들이나 눈물의 흔적(the Trail of Tears)위에서 고통받고 죽어간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노예됨과 억압이 아닌, 실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이 수많은 경로를 거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를 사는 미국들을조차 억압받는 자들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들 중 하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과 생활방식, 수많은 기회들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북아메리카는 여전히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장을 보고 나오는 길마다 계산대를 두고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수많은 잡지들을 보고 압도당하곤 합니다. 이 잡지들의 대부분들을 에어브러시(혹은 포토샵)로 수정된 멋진 몸매와 얼굴들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이 잡지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육체적 매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고 날씬한 여성들과 잘 생긴 남성들을 모델로 세운 이런 잡지들이 스니커즈(the Snickers)와 M&Ms 의 옆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치 누군가 당신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 우스운 감정을 일어나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의 우스꽝스러움은 수단이나 홀로코스트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비교해 보면 지극히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계속해서 노예의 상태에 갇혀 머무르게 만드려하는 이 세상의 본성(the nature of this world)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때든지, 끔찍하고 폭력적인 방법들로 사람들을 억압할 수 방법을 찾아낸다면, 사단은 그것을 가감없이 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항상 상황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잘 활용하는, 뛰어난 (World-Class)의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한 방법으로 우리를 억압할 수 없다면,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그 차별들의 억압 안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중독들과 유혹들을 대면하며, 종종 그 무게에 짓눌려 실패를 맞보기도 합니다.

그 속에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져야 할 억압의 멍에는 수천가지의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위협하고 훼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안에 주어진 참인간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풍성함에 이르는 길 (human flourishing)을 파괴합니다. 그 멍에는 반드시 부서져야 하며, 노예의 짐은 반드시 벗겨지고,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그 짐을 벗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평화의 왕이시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분은 우리의 보혜사(the Wonderful Counselor)이시자, 전능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토론해 볼 주제:

-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억압을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어떤 거짓된 메시지를 당신의 문화는 당신으로 하여금 믿도록 강요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짓된 메시지들과 싸우기 위해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합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거나 혹은 기도 할 수 있습니까?
- 당신은 어떤 종류의 억압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거나 혹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만연하면서도,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혹은 노인차별과 같은 억압으로부터 당신은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 어떻게 이런 억압을 우리의 삶으로 부터 지워나갈 수 있습니까?
- 판단의 어둠이 걷힌 후, 은혜의 빛이 드리울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찰 것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주어질 것”(a child is born... a son is given)이기 때문입니다. 6 절에서, 이 아들을 가르키는 네가지 명칭은 이 아이가 누구이고 무엇을 행할 것인지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그 명칭들 중 어떤 명칭이 당신 마음에 가장 남습니까?